

“생존이나 멸망이나” 지구오염 심각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환경재앙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탄산가스가 대기를 가득 메우고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더워진 지구에서는 이상기후가 발생해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연안도시들은 수몰된다. 신종 바이러스와 환경호르몬이 수많은 종(種)들을 멸종시킨다. 곡물수확량과 어획량은 점점 줄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21세기를 맞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 '지구 오염'의 결과다. 환경위기는 바로 인류가 꼭 풀어야 할 21세기 과제다.

지구 온난화 엘니뇨현상은 지구오염의 실증적 발현이다. 병든 지구를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순풍우조의 기후를 다시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인류가 삶의 편리만을, 재물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생존이나 멸망이나' 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미 콜로라도대 윌리엄 그레이 교수 등 기상전문가들은 "2000년에 카리브해와 미 대서양 연안 인구밀집지역은 지금보다 두배 가량 많은 허리케인이 닥쳐 끔찍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의 발생을 엘니뇨 현상과 연결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악영향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을철 남한강에는 홍수가, 겨울철 낙동강에는 가뭄이 두드러지는 등 우리나라 강수량의 지역적·계절적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지구변화 예측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2배가 될 경우 남한강 총수량 유역에는 저수량량 81%에 달하는 연간 22억3천4백만톤 하천유량이 증가하며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구온난화는 극지방의 빙하도 녹이고 있다. 남·북극과 그린란드지역 빙하들이 모두 줄고



◇ '물고기 킬러' 피에스테리아에 감염돼 죽은 물고기들. 왼쪽 아래 사진은 미생물인 피에스테리아 세포.

는 나중에 피에스테리아로 밝혀졌다. 라틴어로 '물고기 킬러', 물고기의 면역체계를 파괴해 '물고기 AIDS'로 통하는 피에스테리아는 깨끗한 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이 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면 독소를 내뿜게 된다. 우리나라 경남 거제시에서는 2백여 마리가 폐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PCB, DDT 등 중독이었다. 배로의 몸 속에는 높은 농도로 검출된 이 독성 화학물질은 동물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바이러스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화학물질은 성의 변이를 가져오고 기형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도 작용한다. 일본 다마강 유역에 서식하는 수컷잉어의 약 30%에서 생식기

있고, 이것이 없으면 자기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자기도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자기도 멸한다'는 연구법이었다. 인류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래서 그레이 스나이더(미국·문인)는 "지금의 환경문제를 야기한 자기중심의 개발 페러다임을 모든 생명에 공존 가능한 지구환경 페러다임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선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생명존중 정신을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더 나아가면 데이비드 볼(영국·환경운동가)의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로 이행하며, 리타 그로스(미국·환경운동가)에서는 "세계는 나의 신체이다"로 진행한다. 또 폴 세퍼드(미국·환경운동가)는 "사물의 관계는 사물만큼 실재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적 존재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착취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관을 공존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21세기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동·서양의 환경전문가들은 지금 투쟁과 경쟁이라는 '다윈니즘'의 자연관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도의 정화기술 보다는 자연의 근본을 통찰하며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에게 '균형잡힌 생활습관'은 환경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 관심을 갖는다. 수행은 바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와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레미 레프킨교수(미국 코넬대)는 <엔트로피>에서 "부처님의 생활양식 즉, 소비를 최소화한 절제와 절소한 삶을 살리는 생활양식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삶의 방식이며, 앞으로 인류 생활의 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양의 환경전문가들은 스스로 소비수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발적 빈곤, 이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라는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다.

불교계 환경운동 사례

농약·비료 안써 토질 보호 과소비 자제 검소한 생활

●유기농과 생협=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고 상상하는 환경운동이 바로 유기농과 생협이다. 생협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이다. 생협은 도시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키워주고 있다. 또 화학비료로부터 토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부천 석왕사, 서울 영화사, 서울 봉은사, 전남 실상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무심기와 가꾸기=버마 불교인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니밧드하 쿠살라(Nibaddha Kusala) 즉, '오래 지속되는 공덕'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인 문화활동으로 지리잡은 니밧드하 쿠살라는 상응부 팔리경전의 (바나로파수타)에서 나온다. 또 특정 지역을 아브하앗타나(Abhayattana) 즉 '위험없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그 지역 내의 토지를 아끼고 벌목, 가지치기, 도끼질, 방화 등 모든 형태의 파괴 행위를 삼가라고 호소한다.

●반(反)소비운동=태국의 불교지도자 슬라사바라사가 추진하는 환경운동. 이 운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빈한 스님의 삶에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것. 반소비운동은 특히 '선진국이 소비수준을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참조된 잉여자본은 제3세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화페운동=한국불교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페운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기술을 지역화페로 '약속'하고, 품앗이를 통해 서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화폐는 이윤창출과 부의 축적수단이 되지만 지역화페는 서로를 돕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운동의 동력이다. 지역화페운동은 인간의 미망과 아픔을 태우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사회, 나아가 자연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불교와 환경 관련책

환경보존 불교적 대안 제시

▲<불교와 환경> 불교적 세계관과 보살의 삶을 통해 불교환경관을 제시한 책. 저자 법륜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이 일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일임을 소개한다. 정토출판사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 대승·상좌부불교의 환경관에서 불교와 생태학을 결합한 현대의 에코부디즘(Eco-Buddhism)에서의 불교환경론을 소개한 책.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소에서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96년부터 3년간 진행한 연구프로젝트 논문 19편이 수록됐다. 하버드대학출판사

▲<불교와 환경보존> 불교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 청정국토연구원 공동주최에서 펴낸 책. '불지환경수칙', '환경친화적 겨울' 등 개인적 실천관에서 '국립공원', '유기농', '생협' 등 사회적 실천까지 배울 수 있다. 아름다운세상사

엘니뇨-오존층 파괴-종의 멸종 초래 연기·생명존중사상서 해법 찾아야

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50~70년후엔 미 몬태나 빙하국립공원의 빙하들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인구의 31%가 거주하는 연안도시의 침수도 불가피해진다.

열대림 감소·사막화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과학자들은 2050년을 전후해 아마존이나 동남아 등지의 열대우림이 급격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구의 허파' 격인 열대우림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목한 열대우림 파괴 주범은 지구온난화 현상. 연구팀 관계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강수량도 증발량도 훨씬 많아진다. 2050~2070년에는 이런 현상이 뚜렷해져 이 시기에 열대우림은 초원지대나 삼림이 사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열대우림은 육지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열대우림의 면적은 앞으로 1백년도 못돼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인류는 허파의 상실과 함께 많은 '동료' 생물들을 잃어야 할 처지다.

종의 멸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파리로 강 하구지역에서 물고기들이 동전크기만한 상처를 입은 채 죽어 떠돌았다. 범인

능 이상현상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인류가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지구 생태계의 '종'들을 다 죽이고, 급기야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류에게 새로운 식량,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능력 감소를 의미한다.

불교적 해법 '이같은 진단과 전망들은 나가면서 자연은 복수와 재앙의 칼날을 인류에게 휘두를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중지부 아함경 주석서인 <비수디막가(Visuddhimagga)>의 한 구절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준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 인간의 분노와 증오가 가라앉아지지 않을 때 학살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한다. 인간의 무지가 한계를 넘어서면 나쁜 유행병의 시대가 열린다."

환경위기는 바로 '욕망', '분노와 증오', '무지' 등과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 즉, 생태계 전체의 근본 원리는 상호의존, 공생, 상호연관과 보원의 측면이 훨씬 강하다. 상호연관된 존재에서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나올 수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주요 지구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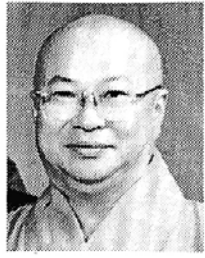
환경문제	개요 및 영향
오존층 파괴	프렌온 방출로 파괴, 피부암 유발, 생태계 악영향
지구 온난화	대기 탄산가스 증가로 발생, 기온·해수면 상승, 곡물생산량 감소
산성비	유황·질소산화물 증가로 발생, 호수·산림생태계 악영향
열대림 감소	화석연료·수목채취 등 남벌로 발생, 대기 자정력 저하
사막화 현상	지나친 가축방목·목재채취로 발생, 토지 생산력 저하
야생동물 멸종	서식환경 악화·남획으로 발생, 잠재적 경제가치 손실
해양오염	폐유유출·화학물질 폐기로 발생, 해양생태계·대기환경에 악영향
유해물질 이동	선진국에서 약소국으로 유해물질 이동, 제3세계 환경에 악영향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김영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승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반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자며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실 율림